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35 호

2020년 9월 1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회원사 전용 온라인 월간 매거진 <Monthly Insights> 런칭
2. [회원사] 제 21 회 세계지식포럼 UNGC 세션 -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여성 리더십
3. [회원사] 실무그룹 안내
 - ESG 실무그룹 1 차 미팅 (9/24)
 -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9/25)
 -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10/16)
4. [TGE 참여사] 『TGE 엠베서더 포럼』 개최 안내 (10/13)

■ 본부 소식

1. 전 세계 CEO, 정부, 시민사회 리더, SDGs 달성을 위해 'Uniting Business LIVE'에 참여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두산인프라코어
2. [SDGs 솔루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트럭
3. [SDG 미디어 존] 평등의 세대: 1% 나누기
 - 품질레 음람보-누카(Phumzile Mlambo-Ngcuka) UN Women 총재

■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nder Equality Korea)

1. [글로벌 동향] BBC 50:50 프로젝트
2. [글로벌 성평등 우수 이행 사례] H&M

■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1. [주요국 부패 관련 법-FCPA ②] 미국 FCPA 위반 및 판결 사례

■ UNGC 회원 뉴스

1.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무분별 개발사업 자금지원 안해"
2. 노을, '현장형 AI 기반 암 조직 진단 플랫폼' 개발 착수
3. 인천항만공사,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 CSR 뉴스

1. RE100 이행 방안 공개 "캠페인 참여와 온실가스 감축 동시에"
2. 맞벌이 여성 가사시간 아직도... '남성의 3.4 배'
3. '한국형 뉴딜'에 ESG 펀드 관심↑...올해 수익률 13%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회원사 전용 온라인 월간 매거진 Monthly Insights 런칭



Monthly Ins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월간 매거진 ‘Monthly Insights’를 10월 7일 런칭합니다. 본 매거진은 회원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발송되며, 매달 첫째주 수요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행사(포럼, 워크숍, 웨비나 등) 결과
- 국내/국외 CSR,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트렌드
- 본부 발간물/기사/보고서 (국문번역 및 요약)
- 이슈별 전문가/연구기관 인사이트 분석
- UNGC 프로젝트 동향: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젠더이퀄리티 코리아(Gender Equality Korea, GEK)

이 외에도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 실무진에게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매월 선별해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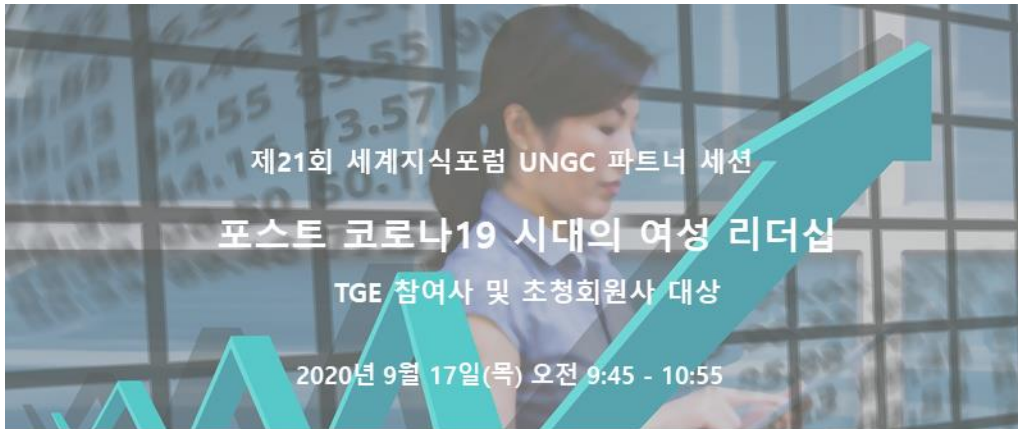
이 밖에 Monthly Insights에서 특별히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Ti4YoAcGk4yVQ4pU9>

*기존 뉴스레터는 공지사항 전달 및 행사 안내 등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기존과 같이 매월 1일, 15일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는 각 회원사 내 UNGC 담당자에게만 전달되는 회원전용 뉴스레터입니다. 자사 내 매거진 구독을 원하시는 다른 실무진이 계실 경우, UNGC 한국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유진 연구원(ykong@globalcompact.kr/02-749-2149)

2. 제 21 회 세계지식포럼 UNGC 세션 -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여성 리더십



|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회복과 재건, 그리고 대비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구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이 바로 여성 리더십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성다양성이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EU, 일본 등 많은 경제선진국이 여성임원할당제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여성 이사 최소 1명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제21회 세계지식포럼의 파트너 세션으로 기획된 본 프로그램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특히 더 강조되고 있는
 여성 리더십 향상의 중요성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

행사 개요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9:45 - 10:55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매일경제 | 참여방법: 온라인 참여

| 시간 | 프로그램 |
|-----|---|
| 5' | 오프닝 및 스피커 소개 - 좌장: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 45' | 발표 1.: 글로벌 여성 리더십 동향과 시사점 - 로런 글라,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성 및 여성역량강화 담당자 발표 3: 기업 임원 성다양성과 기업성과 - 미즈노 히로, GPIF 前 최고투자책임자 발표 2: 국내 여성 리더십 법제화 동향 -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 20' |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및 발표자 3인 - 패널: 권해진, LG화학 상무 |



로런 굴라(Lauren Gula),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속가능성 및 여성역량강화 담당자

로런 굴라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시니어 매니저다. 굴라는 2009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합류한 후, 성평등을 포함한 기관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포트폴리오를 위해 전략적인 방향과 리더십을 제공했다. 굴라는 유엔 여성기구와의 합작인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강화하고 성 격차 분석 툴을 지휘하며 인권과 통합 문제에 집중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책임졌다. 굴라는 현재 성 격차 분석 툴을 선도적으로 디자인·개발하고 있다. 비즈니스계의 여성 대표와 리더십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 글로벌 계획은 2020년 19개국에서 개시될 전망이다. 뉴욕 뉴스쿨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캐나다 달하우지대에서 국제개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의 정재규 선임연구위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기관투자자 원칙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 집행위원, 준법감시협의회 준법감시제도발전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실무평가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정 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즈노 히로(Hiro Mizuno), GPIF 전 최고투자책임자

2015년 1월부터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일본공적연금(GPIF)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재직했다. GPIF의 펀드 운용자산(AUM)은 1조5000억 달러다. 일본공적연금펀드의 CIO로 일본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다. GPIF 입사 전에는 런던 기반 사모펀드 콜러캐피털(Coller Capital)의 파트너를 지냈으며 스미토모신탁은행 일본, 실리콘 밸리 및 뉴욕지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사회적 임투자원칙(PRI) 이사회 멤버다. 테슬라의 외부이사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퓨처 카운슬(Global Future Council) 위원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특별고문으로서,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 도쿄대 총장실 고문, 경영대학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권혜진, LG화학 상무

권혜진 상무는 LG화학 조직문화리더십 개발 담당으로 LG화학의 조직문화 변혁과 리더십 개발 전환을 이끌고 있다. 2019년 입사 후 단 1년 만에 회사의 새로운 비전 수립 및 확산 전파, 외부 핵심인재 영입, 리더십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사업가 육성 체계 구축 및 실행 등을 주도했다. LG화학 입사 전에는 한국 싱가포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며 싱가포르 동남아 지역 인사 총괄을 역임했으며, 그 이전에는 램리서치, 코카콜라보틀링, 타워스왓슨 등 다양한 기업 및 컨설팅 경험이 있다. 사우던캘리포니아대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본 세션에 관심있는 회원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49/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사] 실무그룹 안내

- ESG 실무그룹 1 차 미팅 (9/24)



코로나 19 로 인해 연기되었던 ESG 실무그룹 1 차 미팅을 9 월 24 일(목)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이 어려울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1 차 미팅에서는 △ESG 와 기업 지속가능성 △국내외 ESG 동향 △ESG 관련 규제 및 제도 △기업 ESG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그룹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차 미팅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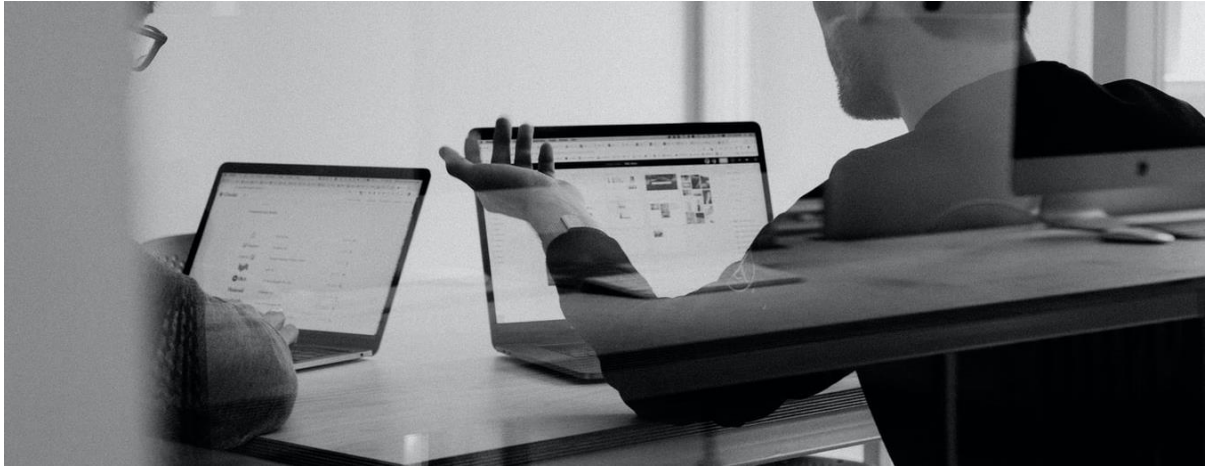
- **일시:** 2020 년 9 월 24 일(목) 오후 2:30-5:30
-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변동 시 추후 공지)
- **프로그램(안):**

| 시간 | 프로그램 |
|---------------------|----------------------------|
| 14:30 - 14:35 (5') | 인사말 |
| 14:35 - 14:40 (15') | ESG 관련 영상 시청 |
| 14:40 - 15:10 (30') | ESG 동향 및 기업 대응 |
| 15:10 - 15:20 (10') | 질의응답 |
| 15:20 - 15:30 (10') | 휴식 |
| 15:30 - 16:40 (70') | 참석자 소개 및 참여기업 ESG 대응 현황 공유 |
| 16:40 - 17:00 (20') | ESG 현안 및 실무그룹 운영 방안 논의 |

▶ 문의: 이수란 과장 / 공유진 연구원(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

*본 미팅은 실무그룹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9/25)



공공부문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2 차 미팅에서는 실무그룹 참석기관의 △고충처리 메커니즘 △협력사 인권경영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실무그룹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차 미팅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2020년 9월 25일 (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추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추후 연기되거나 온라인 회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대면 회의 진행 시에도 화상(Zoom)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
| 14:00 - 14:05 (5') | 오프닝 |
| 14:05 - 14:20 (15') | 기업과 인권 사례 영상 시청 |
| 14:20 - 14:35 (15') | 고충처리 메커니즘 사례 발표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 14:35 - 14:50 (15') | 협력사 인권 경영 사례 발표 - 한전 KDN |
| 14:50 - 15:20 (30') | COVID-19 기업 인권 체크리스트 결과 공유 |
| 15:20 - 16:00 (40') | 인권경영 현안 및 실무그룹 운영 방안 논의 |

▶ 문의: 박재영 연구원 / 여지원 연구원 (02-749-2150, gckorea@globalcompact.kr)

*본 미팅은 실무그룹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 (10/1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반부패 실무그룹 2차 미팅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기업 환경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2차 미팅에서는 코로나19가 반부패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리스크 및 이슈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영국왕립표준협회(BSI) 관계자를 초청하여,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인 ISO37001 및 ISO/DIS 37301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의 실질적인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그룹 참여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부패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해 사전 점검해보며 동료학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차 미팅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일시:** 10월 16일(금) 14:00 - 17:00
-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 **추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연기되거나 온라인 회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안):**

| 시간 | 프로그램 |
|---------------------|--|
| 14:00 - 14:05 (5') | 인사말 -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 |
| 14:05 - 14:35 (30') | ISO37001 및 ISO/DIS 37301 과 기업 반부패 - 영국왕립표준협회(BSI) |
| 14:35 - 14:50 (15') | 코로나 19 와 반부패 -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
| 14:50 - 15:05 (15') | 질의응답 |
| 15:05 - 15:15 (10') | 휴식 |
| 15:15 - 16:45 (90') |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부패 리스크 관리 현황 공유 - 반부패 실무그룹 참여사 |
| 16:45 - 17:00 (15') | 향후 미팅 아젠다 논의 및 마무리 |

▶ 문의: 이수란 과장 / 임재진 연구원 (02-749-2149, gckorea@globalcompact.kr)

* 본 미팅은 실무그룹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4. [TGE 참여사] 『TGE 엠베서더 포럼』 개최 안내 (10/1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내 여성 리더십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TGE(Target Gender Equal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위급 조찬 포럼, 『TGE 엠베서더 포럼』을 개최합니다.

각 TGE 참여 기업의 임원인 TGE 엠베서더를 대상으로 하는 본 포럼은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민간부문의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동향 및 계획을 알아보고, 우수한 성평등 정책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통해 성평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솔루션과 실질적인 효과 등을 나눌 계획입니다.

특히 본 포럼에서는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이 TGE 참여 기업에게 보내는 'TGE 참여 증서'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참여 기업 간 고위급 네트워킹 및 정부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이자, 각 기업의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모멘텀이 될 본 조찬 간담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7:30 - 9:00

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벨류스 스위트(36F) | 참석: 엠베서더(임원) 1인, 실무자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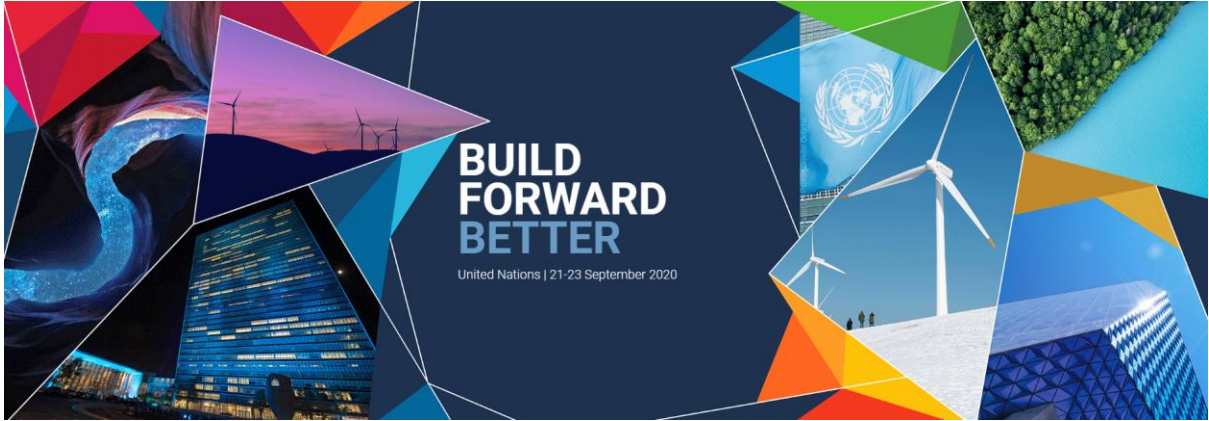
| 시간 | | 프로그램 |
|-------------|-----|--|
| 07:30-07:35 | 5' | 환영사 |
| 07:35-07:40 | 5' | TGE 참여 증서 전달식 |
| 07:40-07:55 | 15' | 발표 1. 민간부문 성평등 및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성 |
| 07:55-08:10 | 15' | 발표 2. 글로벌 성평등 우수기업 사례 |
| 08:10-08:20 | 10' | 질의응답 |
| 08:20-09:00 | 40' | 조찬 |

문의사항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여지원 연구원, 공유진 연구원(02-749-2149/5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럼은 TGE 참여사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부 소식

1. 전 세계 CEO, 정부, 시민사회 리더, SDGs 달성을 위해 'Uniting Business LIVE'에 참여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최초로 온라인 Uniting Business LIVE 행사를 개최합니다. 제 75 회 유엔총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Uniting Business LIVE 는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 리더들을 온라인에서 한데 모아 유엔의 미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3 일에 걸친 이 컨퍼런스에는 CEO, 기업 지속가능경영진,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지도자, 젊은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UN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일정: 2020 년 9 월 21 일부터 23 일

- 9 월 21 일: 민간 부문 포럼
- 9 월 22 일: 글로벌 임팩트 포럼
- 9 월 23 일: 지속가능발전목표 비즈니스 포럼 (UNGC, 유엔경제사회국 및 국제상공회의소 공동주최)

참여방법: 온라인 참여(사전 참여신청 필요)

참가 신청, 연사 명단 및 안건 전문은 [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월 21 일(월) - 민간 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

2008 년 이래로, 유엔 사무총장의 연간 민간 부문 포럼(Private Sector Forum)은 유엔 총회주간 동안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인권 등 주요 글로벌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올해 민간 부문 포럼은 다국적 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는 기업 CEO 들이 유엔의 사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현재 확정된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밀튼 첩(Milton Cheng) 베이커맥켄지 글로벌 총괄,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유엔에이즈계획 사무총장, 솜삭 텡수틴(Somsak Thepsuthin) 태국 법무부장관, 글라우디아 블럼(Claudia Blum) 콜롬비아 외교부장관,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 | |
|--|--|
| 07:00 - 08:00 (한국 시간: 20:00 - 21:00) | 환영 인사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Plenary |
| 08:00 - 08:50 (한국 시간: 21:00 - 21:50) | 용감하게 선도하기: 새로운 글로벌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선언 밀튼 첩(Milton Cheng) ·Plenary |
| 09:00 - 10:00 (한국 시간: 22:00 - 23:00) | 생중계: 유엔 75주년 기념 총회 고위급 회의 ·Plenary |
| 09:30 - 10:30 (한국시간: 22:30 - 23:30) | CEO 해양 라운드테이블 - 해양 스튜어디십 1주년 평가 |
| 10:00 - 11:00 (한국 시간: 23:00 - 24:00) | UN 75주년에 대한 비즈니스 성찰과 대응 ·Plenary |
| 11:00 - 11:30 (한국 시간: 9월 22일 00:00 - 00:30) | 네트워킹 및 콘텐츠 스튜디오 투어 ·분과 세션 |
| 11:30 - 12:30 (한국 시간: 9월 22일 00:30 - 01:30) | 인권과 발전: 'Leave No One Behind'원칙을 위한 비즈니스 행동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위니 바니마(Winnie Byanyima) ·Plenary |
| 12:30 - 13:30 (한국 시간: 9월 22일 01:30 - 02:30) | 글로벌 리더 라운드 테이블 베아트리지 페레즈(Beatriz Perez)·필립 제닝스(Philip Jennings)·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Delia Ferreira Rubio)·스티브 켄지에(Steve Kenzie) ·분과 세션 |
| 13:30 - 13:50 (한국 시간: 9월 22일 02:30 - 02:50) | HoS 연설 ·Plenary |
| 13:50 - 14:00 (한국 시간: 9월 22일 02:50 - 03:00) | 음악 공연 ·Plenary |
| 14:00 - 16:00 | 네트워킹 및 콘텐츠 스튜디오 투어 |

9 월 22 일(화) - 글로벌 임팩트 포럼(Global Impact Forum)

제 1 회 글로벌 임팩트 포럼에서는 SDG 앰비션,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Young SDG 혁신가(Young SDG Innovators), 1.5°C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Business Ambition for 1.5°C) 등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4 가지 기업 행동 이니셔티브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주류화하고 비즈니스 솔루션을 확대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청년들이 기업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은 무엇인가?
2. 성차별을 타파하고 포용성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들이 인종·민족·계급·능력·성 지향성 및 기타 정체성 측면에 기반하여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1.5°C 기후행동을 주류화하고 기업과 정부가 더 나은 회복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 척도를 통합하고, 모니터링 하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확정된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사무부총장, 크리스천 클레인(Christian Klein) SAP CEO, 줄리 스위트(Julie Sweet) 액센츄어 CEO, 로레인 해리톤(Lorraine Hariton) 카탈리스트 대표·CEO, 셀윈 하트(Selwin Hart) 유엔사무총장 특별자문관, 피오나 레이놀즈(Fiona Reynolds) PRI CEO

| | | | |
|--|---|--|---|
| 06:00 - 07:00 (한국 시간: 19:00 - 20:00) | 베이루트의 회복을 위한 민간부문 지원 마이사 아부 아달 가넴 (Maissa Abou Adal Ghanem)·세바스티안 로즈 스탬파(Sebastian Rhodes Stampa)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이 강한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이브라힘 아산 마야키(Dr. Ibrahim Assane Mayaki)·런 흥빈(Ren Hongbin)·Plenary | 원칙중심의 탄소 감축: UNGC 네트워크 우수사례 공유 페드로 본 바카노(Pedro Von Vacano)·아틀레이 무하렘 굴라(Atalay Muharrem Gumrah)·분과세션 |
| 06:00 - 07:00 (한국 시간: 19:00 - 20:00) | 원칙중심의 환경 관련 혁신: 민간부문을 위한 레슨 주바이르 안와-바와니(Zubair Anwar-Bawany)·분과세션 | | |
| 06:00 - 07:00 (한국 시간: 19:00 - 20:00) | 회복을 위한 건축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 | |
| 07:00 - 07:10 (한국 시간: 20:00 - 20:10) | 환영 인사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Plenary | | |
| 07:10 - 08:00 (한국 시간: 20:10 - 21:00) | SDG를 향한 포부 - 지역 별 SDG 이행을 통한 글로벌 임팩트 창출 크리스티안 클라인(Christian Klein)·줄리 스위트(Julie Sweet)·Plenary | | |
| 08:00 - 08:45 (한국 시간: 21:00 - 21:45) | SDG를 위한 청년, 리더십, 혁신 마숙 무집 차우두리(Mashook Mujib Chowdhury)·츠고팻소 콜레(Tshegofatso Kole)·Plenary | | |

| | |
|--|---|
| 09:00 - 09:45 (한국 시간: 22:00 - 22:45) | 타겟 젠더 이퀄리티: 어떤 여성도 뒤쳐지지 않는 것 로레인 헤리턴(Lorraine Hariton) ·Plenary |
| 09:00 - 10:00 (한국 시간: 22:00 - 23:00) | 총회 생중계 ·Plenary |
| 11:00 - 12:00 (한국 시간: 9월 23일 00:00 - 01:00) | 네트워킹 세션: COVID-19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트렌드 멜다 실레(Melda Cele) ·분과 세션 |
| 12:00 - 13:00 (한국 시간: 9월 23일 01:00 - 02:00) | SDG 포부: 행동의 10년을 위한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마이클 휴스(Michael Hughes)·아니타 바시니(Anita Varshney) ·분과 세션 |
| 12:00 - 13:00 (한국 시간: 9월 23일 01:00 - 02:00) | 포스트 COVID-19와 SDG 실행: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로컬 대응 제임스 퀸시(James Quincey) ·분과 세션 |
| 12:00 - 13:00 (한국 시간: 9월 23일 01:00 - 02:00) | 글로벌 임팩트를 위한 포부: 금융 전문가들의 SDG 교육 ·분과 세션 |
| 12:30 - 13:00 (한국 시간: 9월 23일 01:30 - 02:00) | 앰비션 루프(Ambition Loop) 지원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실비아 라그나도(Silvia Lagnado) ·Plenary |
| 13:00 - 14:00 (한국 시간: 9월 23일 02:00 - 03:00) | 교육의 목적 재해석: 임팩트를 위한 대학교육 ·분과 세션 |
| 13:00 - 14:00 (한국 시간: 9월 23일 02:00 - 03:00) | 1.5°C 미래를 위한 글로벌 기후 행동 촉진 피오나 레이놀즈(Fiona Reynolds)·셀윈 하트(Selwin Hart)·블라디슬라브 카이임(Vladislav Kaim) ·Plenary |
| 13:45 - 14:00 (한국 시간: 9월 23일 02:45 - 03:00) | 마무리 인사 ·Plenary |
| 15:00 - 16:00 (한국 시간: 9월 23일 04:00 - 05:00) | SDG 마케팅: 마케팅 전문가들의 우수사례 공유 페르난도 마차도(Fernando Machado)·브라이언 위플(Brian Whipple)·나탈리아 베가 베리(Natalia Vega Berry)·데이브 킹스베리(Dave Kingsbury)·스테파니 부스체미(Stephanie Buscemi) |

9 월 23 일(수) - SDG 비즈니스 포럼(SDG Business Forum)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경제사회국, 국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SDG 비즈니스 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유엔 행동의 10년'(Decade of Action)의 시작과 함께합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부터의 회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고, 팬데믹 위기

동안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실패한 세계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경영진과 전문가 세대)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민간 부문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프레임워크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준비하고, 기후변화와 자연 훼손·사회적 불평등·경제적 소외 등 2020 년의 사건들로 인해 드러난 3 개의 취약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터 바이젯(Ester Baiget) 노보자임 CEO, 케리 아들러(Kerry Adler) 스카이파워 회장, 리우젠민(Liu Zhenmin) 유엔 경제사회 사무차장보, 존 덴톤(John W.H. Denton AO)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Ajay Banga) 국제상공회의소 소장·마스터카드 CEO

| | | | |
|--|--|--|---|
| 07:00 - 07:30 (한국 시간: 20:00 - 20:30) | 오프닝 인사 매기 레이크(Maggie Lake)·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Plenary | | |
| 07:30 - 08:30 (한국 시간: 20:30 - 21:30) | COVID-19 시대, SDG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케리 아들러(Kerry Adler)·에스터 베이게(Ester Baiget) ·Plenary | | |
| 9:00 - 10:00 (한국 시간: 22:00 - 23:00) | 더 나은 모습으로 재건하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미래 설계 분과 세션 | 해양과 2030 아젠다: 행동 지향 유엔 해양회의 분과 세션 | SDG 이행을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인 넬슨(Dr. Jane Nelson)·타카시 히비노(Takashi Hibino)·조지 나카야마(George Nakayama)·수니타 그로테(Sunita Grote)·미셸 에드킨스(Michelle Edkins) 분과 세션 |
| | SDGs 달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히비노 다카시(Takashi Hibino)·제인 넬슨 박사(Dr. Jane Nelson)·수니타 그로테(Sunita Grote)·미셸 에드킨스(Michelle Edkins)·조지 나카야마(George Nakayama) 분과 세션 | 목적 지향 비즈니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업 행동 분과 세션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글로벌 목표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분과 세션 |
| 10:00 - 11:00 (한국 시간: 23:00 - 24:00) | 원칙에 기반한 리더십을 통한 불평등 해소 류젠민(Liu Zhenmin)·전원 참석 세션 | | |
| 11:00 - 12:00 (한국 시간: 9월 24일 00:00 - 01:00) |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 SDGs를 추진하기 위한 물 혁신 소그룹 세션 | 비즈니스를 통한 지속 가능하고 탄소배출이 낮은 이동수단 발전 소그룹 세션 | 아젠다 2030 달성을 위한 SME 가능성 향상 소그룹 세션 |
| | JCI RISE: COVID-19 이후 세계 재건 프란시스코 아바드(Francisco Abad)·말락 알 아카일리(Malak Al Akiley)·이타이 마니에르(Itai Manyere)·케빈 힌(Kevin Hin) 분과 세션 | 기업 투명성, 사회 혁신과 SDG 분과 세션 | 자연은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 비즈니스와 정책 대화 분과 세션 |

| | |
|--|--|
| 12:30 - 13:30 (한국 시간: 9월 24일 01:30 - 02:30) | 탄력적인 재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 존 덴턴(John Denton)·엠마뉴엘 페이버(Emmanuel Faber)·폴 폴만(Paul Polman)·베로니카 데 라 세르다(Veronica de la Cerda)·유타 우필레넨(Jutta Urpilainen) ·Plenary |
| 13:30 - 14:00 (한국 시간: 9월 24일 02:30 - 03:00) | 폐회사 아제이 뱅가(Ajay Banga)·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Plenary |

참가 신청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

UNGC 가입: 2013. 5. 29

1937년 한국 최초의 대단위 기계공장인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출발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80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건설기계, 엔진, 각종 어태치먼트와 유틸리티 장비 등 모든 참여 사업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한 한국 최고의 기계 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지원 산업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 사업부문은 1977년부터 우수한 품질의 중대형 건설장비를 산업 현장에 공급하며 글로벌 인프라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두산(Doosan), 밥캣(Bobcat), 기스(Geith)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굴착기와 휠로더에서 굴절식 덤프트럭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추고 전 세계 각지에 생산, 판매 및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명실 상부한 글로벌 종합 건설기계 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엔진

엔진 사업부문은 1958년 한국 기업 최초로 디젤엔진을 생산한 이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버스·트럭용, 산업용, 발전기용, 선박용 디젤엔진과 가스엔진을 세계 각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엔진은 강화되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를 만족하는 고품질, 고사양의 엔진들로 Full Line-Up을 갖추고 사회와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술, Total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Global Top Engine Maker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룹차원 기부

2월 27일, 두산그룹 차원에서 COVID-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앞으로 1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본 기부금은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기부 및 사회공헌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중구 창신동 쪽방촌(동대문 지역)과 인천 동수 화수1/2동 및 만석동의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약 7,900개의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 '드림스쿨'(멘토링 기반 청소년 꿈찾기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대상 '주니어 공학교실'(만들기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를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을 Teams 및 Zoom,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해외사업장에서는 1월 27일 COVID-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건설장비, 의료품 및 성금을 전담하였습니다. COVID-19 환자 긴급 수용을 위한 '휘선산', '레이선산' 병원 건설 지원을 위해 굴착기 40대 및 운전자, 서비스팀을 배치하였으며, 110만 위안(약 1.86억 원) 상당의 의료품(방호복 및 마스크)과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속한 COVID-19 비상대응 체계 구축

두산인프라코어는 COVID-19에 신속한 대응 및 사업연속성(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관리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사는 국내 확산이 격화되기 시작한 2월 25일부터 CEO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역별 공장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별 비상운영 체계를 CEO에게 보고하고, 사업장 폐쇄 및 운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및 그룹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COVID-19 비상상황실(TF)를 구축하여(CEO, EHS, 인사, 총무, Communication 및 생산 관련 부서) 비상상황 발생 단계별 보고 및 대응체계에 대한 process를 구축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상세한 사전 안내 및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진행하였습니다. TF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직원 행동요령 가이드 배포 및 적용
- 임직원 대상 개인 COVID-19 예방을 위한 세부수칙 배포 및 적용

- 비상상황(임직원/가족 및 사내협력사 인원 중 COVID-19 의심/확진 상황 등) 발생 시, 매주 금요일 및 일요일에 DI 비상상황실 안내 문자 발송
- 비상상황실 정보공유망을 활용한 COVID-19 검사자 및 결과 실시간 유선 보고

이와 더불어 두산인프라코어는 전 임직원이 COVID-19에 대하여 동일한 가이드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행동/대응 가이드 배포 및 적용을 통해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내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COVID-19 감염 현황까지 파악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COVID-19 케이스별 행동 지침 및 회사 대응 절차 수립(발열 시, 본인 및 가족 의심상황 발생 시, 확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 기재)
- 전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응 가이드 안내(방송, 메일, 포털 공지 등)
- 임직원 및 가족을 포함한 확장된 보호망 적용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진행: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이 확진자/유증상자/코로나 검사자인 경우 임직원도 동일하게 자가격리 적용(근태 코드 지원)

마지막으로, 주재원 및 출장자 보호를 위하여 출장가이드를 배포하고, COVID-19 위험지역 출장/방문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후 건강에 이상이 없을 시에만 출근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VID-19 위험지역 출장금지/자제에 대한 가이드 배포 및 적용
- (국내/해외 오염지역의 경우 출장금지 및 출장/방문자 대상 복귀 후 14일간 자가격리 적용)
- 해외 주재원 및 가족, 출장자 한국 복귀 지원
- 금지지역 외 출장에 대해서도 자제/연기 권고



사업장 관리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장 내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인원(임직원 및 외부인원 포함) 전수 발열체크 및 37.5도 이상 발열자 출입불가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약 80개를 배포하여 각 팀/직별 체온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발열이 있는 직원의 경우 출근자제 안내를 했으며 그 외에도 아픈 증상이 있다면 쉬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업장 내 사무실, 현장, 엘리베이터 등에 손세정제 약 600개를 비치하였으며, 정기방역(분무 소독) 실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특별방역을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위생 소독(손잡이 살균 등)을 실시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홍보 포스터 및 배너 게시, 사내방송 송출을 진행했습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사내/외 단체활동 금지(행사, 워크샵 등) 및 사내동호회 모임을 잠정 중단하고 다중이용시설(후생관, 휘트니스 등)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통근 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일일 소독 실시, 사내식당 2부제(밀집도 분산) 및 혼밥 테이블(가림막, 비말 전파방지)를 운영했습니다.

재택근무/Remote work 실시

두산인프라코어는 심각단계에서 임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재택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택/Remote work가 진행될 수 있도록 IT 인프라를 지원했습니다. 재택근무 시행을 위하여 직원 대상 COVID-19 대응 및 근무 가이드를 배포 및 적용했으며, 그룹과 회사의 가이드에 따라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 사무소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Public Cloud 상의 업무 플랫폼인 Office365(Teams, OneDrive)와 Skype 등의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들은 Teams 및 Skype 등을 활용하여 사내/외(고객, 협력사, 외부 counterpart)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회의 정착 및 협업을 통한 효율적 업무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택근무에 따른 정보보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Office365 보안 서비스를 적용하여 사내자료의 외부 유출을 관리함으로써 재택근무/Remote work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이슈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임직원 대상 지원 사항

두산인프라코어는 임직원 및 동거인(가족)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근태지원을 하였으며 임직원의 동거인(가족)이 정부로부터 자가격리를 명령받는 경우(가족이 해외 입국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등), 동일 기간 동안 임직원도 자택대기(근태지원)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전 임직원(인천/군산/안산/보령 및 지역서비스 포함)에게 KF94마스크를 인당 15개 지급했습니다.

협력사 대상 지원 사항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내 협력사 임직원에게 KF94 마스크를 인당 15 개 지급하였으며 대면업무 및 사람간 접촉이 많은 사내 협력업체(경비대, 위생미화 등)를 대상으로 총 2,000 개의 마스크(KF94, 덴탈)를 지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손소독제 지급 및 비접촉식 체온계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 [SDGs 솔루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트럭



Idelic의 Safety Suite는 트럭 운송 산업의 안전을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 놓으며, 이 모델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사의 행동을 이해하고 충돌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delic은 운송 업계 내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트럭 운송 기업을 대상으로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의 운송수단에 운전자의 운전 수행 및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텔레매틱스와 온보드 비디오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향상을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Idelic의 Safety Suite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운송수단 운용자가 차량 운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Safety Suite는 자산 관리 데이터를 축적하여 차량의 상태뿐 아니라 각 운송자의 HR 및 자격증명 파일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디지털상으로 조합되고 분석되며, 이는 기업이 사전에 고위험군 운송자를 식별하여 충돌 사고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운송 기업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이직률이 높고 직업만족도가 낮은 운송 업계의 근로 환경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이와 함께, 본 소프트웨어는 안전성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보험 청구를 줄여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Idelic은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보험 청구를 48%, 보험료를 58% 절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성과 사업비 절감 효과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왜 Idelic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매년 20억 톤이 넘는 위험 물질이 트럭으로 운반됩니다. Idelic은 기업들이 오염 물질 유출 및 기타 환경 오염적인 트럭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및 재정적 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접근을 지원합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건강하고 질 좋은 삶

운송 차량군은 Safety Suite를 사용하여 운송 노동자의 세부적인 성과 개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충돌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Idelic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보험 청구 건수를 절반가량 줄이고 모든 도로 운행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SDG 미디어 존] 평등의 세대: 1% 나누기

- 품질레 음람보-누카(Phumzile Mlambo-Ngcuka) UN Women 총재



UN Women은 여성 차별 철폐, 여성 권익향상, 경제개발, 인권, 안보 부문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2011년 1월 출범하였습니다. UN 내 성평등 관련 부서를 유지하고,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각국 정부에 기술·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측 품질레 말람보-누카(Phumzile Mlambo-Ngcuka) 유엔여성기구 전무이사>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품질레 말람보-누카(Phumzile Mlambo-Ngcuka) 유엔여성기구 총재가 참여해 '제너레이션 평등'을 위한 1%의 나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2020년 베이징 행동 플랫폼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한 지 25년이 된다. 세계는 성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품질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모성 건강, 교육, 특히 북경에서 시작된 여성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은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 리더십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이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부정적인 면은 성별 임금격차, 즉 아직 달성되지 못한 경제적 정의이다.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가로막는 문제들은 여전하다. 아마 이것이 성별에 기반한 가장 위협적인 폭력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Q. UN여성기구는 베이징 행동 플랫폼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순간은 무엇인가?

(품질레) 우리는 수많은 국가가 베이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대대적인 선언을 채택한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투자 계획, 실행을 위한 협력 로드맵 등이 부재했으며, 충분한 범위의 파트너십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온 영역들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각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각국은 우리가 지난 십 년간 얻은 교훈을 수용하고, 우리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행동 연합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평등의 세대(Generation Equality)’라고 부른다. ‘평등의 세대’는 여러 청년들의 행동을 이끄는 데 중점을 두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여섯 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정의, ▲여성과 기후, ▲여성 리더십과 참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기술 ▲혁신이다. 이 분야들은 멕시코에서 행동 방침과 함께 각각 공표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파트너들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유엔여성기구는 이러한 단계를 이끌어낸 뒤 5월 멕시코에서부터 7월 파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토론과 숙의를 진행할 것이다.

Q. 멕시코와 프랑스에서 열리는 포럼은 어떤 행사인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할 이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품질레)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는 목표 달성이 가속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25년이 지나면서 성과의 규모가 축소되고,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민간 부문과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까지 영향력이 닿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퇴보하여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잃게 될 것이다.

Q.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만큼, 민간부문의 역할, 특히 행동 연합을 추진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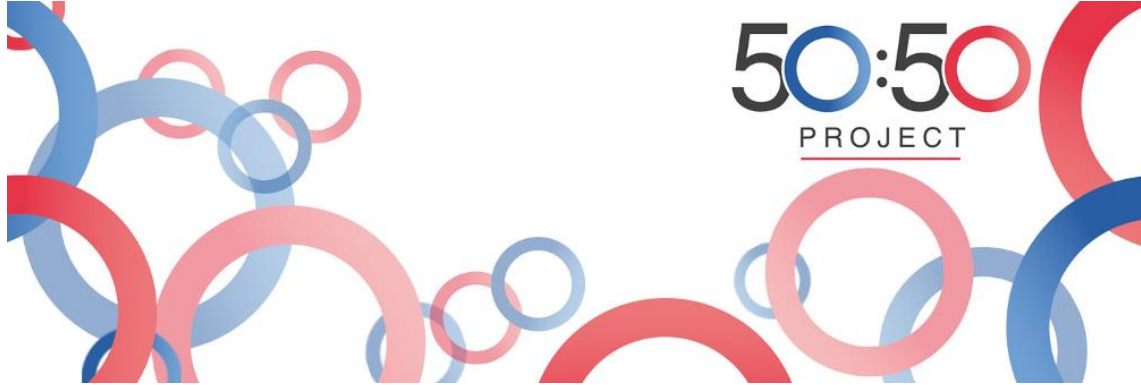
(품질레) 목표 달성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필요하다. 그 예시로, 마스터카드의 약 5억 명의 인구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접근과 디지털 통합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정부가 디지털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을 잘 규제한다면 여성을 포함한 더 많은 이들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보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민간 분야와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보건 시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와 정책을 개선하는 동안 민간 분야는 e-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가능한 한 가까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베이징 행동 플랫폼 25주년을 한 번 더 기념하며, 여성을 위한 여러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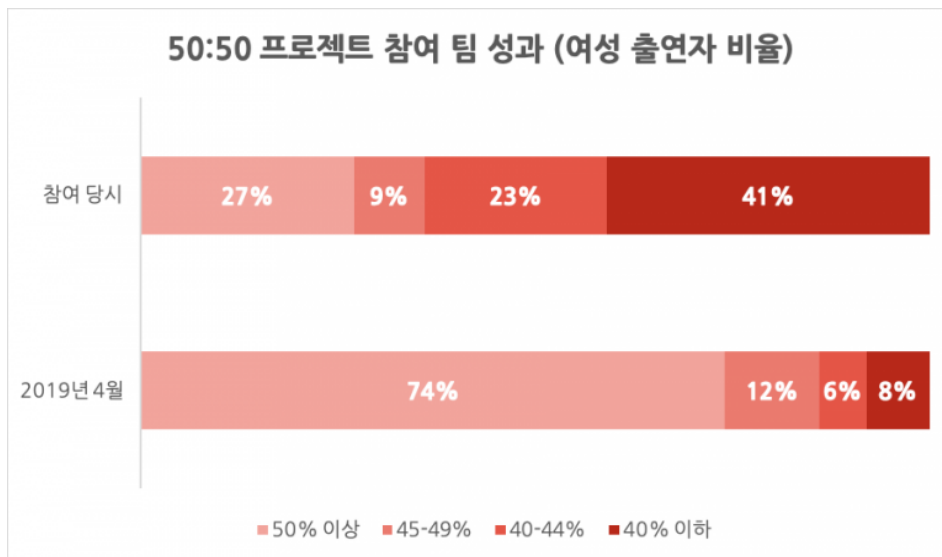
[자세히 보기](#)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nder Equality Korea)

1. [글로벌 동향] BBC 50:50 프로젝트



BBC 50:50 프로젝트는 영국의 공영방송사 BBC 가 2018 년 공식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2019 년 4 월까지 출연자 최소 50%를 여성으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로 출범되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 Outside Source 의 진행자 Ros Atkins 가 2017 년 본인의 프로그램에서 셀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에는 BBC 내 500 개의 팀이 참여했으며, 참여 팀 중 74%가 여성 출연자 비율 50%라는 50:50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50:50 프로젝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기자, 앵커 및 진행자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성 스포츠에 대한 소식을 더 활발히 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BBC 는 프로그램 내 여성의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정치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BBC 에 행보에 따라 영국 내 정당들은 방송에 남성 정치인 대신 여성 정치인 및 대변인을 자주 출연시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후 조사 결과 시청자 3 명 중 1 명은 여성이 BBC 프로그램에 더 많이 출연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여성 시청자 5 명 중 1 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BBC 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6 세부터 34 세까지의 시청자들은 늘어난 여성의 대표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 결과에 힘입어 파이낸셜타임스와 ABC 뉴스 등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유럽 내 여러 언론사들은 50:50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는 지난 2012 년 ‘미디어 젠더 감수성 원칙’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전문가, 대변인, 일반인 등의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토니 홀(Tony Hall) BBC 사장은 “더 많은 미디어 산업이 다양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BBC 가 50:50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GEK에서 보기

2. [글로벌 성평등 우수 이행 사례] H&M



| H&M Hennes and Mauritz 기업 현황 | |
|------------------------------|---|
| 업종 및 규모 | 업종 : 의류 및 유통업 매출 : 251.9억 달러 (2018) |
| UNGC 가입 연도 | 2001.02.16 |
| 주요 성 평등 정책 및 목표 | <평등임금제도-Wage Management System> <직원참여장려제도-People Engagement Pulses> + 이외에도 각 지역/국가 특성에 맞춘 성평등 정책 전개 |
| 성 평등 현황 | 여성 임원 비율 : 40% (2018) 남녀 임금격차 : 9.3% (2017) |

Approach

70년 전 창사 당시 '기회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없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 포용과 다양성이 바탕이 되는 기업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생산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00% 평등의 달성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하여 기업 주요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성평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M은 기업 및 공급망에서의 100% 평등 달성을 목표 하고 있습니다. WEPs 참여를 시작으로 기업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기업인의 양성을 위해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STRATEGY



평등 임금 제도 - Wage Management System

H&M은 Wag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 개개인의 역량, 전문지식 및 경험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각자의 능력과 결과에 합당한 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직원 개개인이 받는 임금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직원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 People Engagement Pulses (PEP)

직원 참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H&M 은 People Engagement Pulses 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참여해, 기업의 정책과 업무 환경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 직원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있어 직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을 통해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MPACT

H&M의 성평등 정책들은 사내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H&M의 사업 파트너 중 93%가 H&M을 공정사업파트너 (Fair Business Partner)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인 90%를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또한, H&M의 작업장 중 67%이 급여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50% 달성을 뛰어넘은 결과이며, 약 93만명의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평등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2018년 남성과 여성 각각 83%와 81%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내부 및 외부에서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Fortune에서 선정하여 전세계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The Gender Equality Index”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출처: H&M Group (2018). Sustainability Report
H&M Group (2017). Gender Pay Report

[GEK에서 보기](#)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1. [주요국 부패 관련 법-FCPA ②] 미국 FCPA 위반 및 판결 사례

FCPA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동안 FCPA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FCPA는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FCPA 역사상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된 사건 10건 중 8건이 2010년 이후에 발생했으며, 이 중 무려 6건이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4명의 법인 대표자가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기업들은 역대 최고인 26억 5,000만 달러의 벌금과 합의금을 납부했다. 이 중에는 한국 기업의 미국지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전세계 24개국의 수사기관들과 협력조사를 진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부패 이슈와 관련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부패 관련 사건 수와 벌금액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유럽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인 에어버스(Airbus)가 가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해외에서 자사의 항공기 판로 개척을 위해 불법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美 정부에 5억 2,600만 유로, 프랑스에 21억 유로, 영국에 9억 8,400만 유로 등 총 36억 유로(약 4조 7천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부패 관련 벌금으로 3위인 에릭슨(Ericsson)이 2019년에 납부한 10억 600만 달러의 거의 두배가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FCPA 벌금 순위

| 순위 | 기업명 | 산업 | 국가 | 벌금 | 연도 |
|----|---------------------------------|--------|----------|---------------|------|
| 1 | Airbus SE | 항공우주 | 네덜란드/프랑스 | 20억 900만 달러 | 2020 |
| 2 | Petróleo Brasileiro S.A. | 에너지 | 브라질 | 17억 8,000만 달러 | 2018 |
| 3 |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 통신 | 스웨덴 | 10억 600만 달러 | 2019 |
| 4 | Telia Company AB | 통신 | 스웨덴 | 10억 100만 달러 | 2017 |
| 5 | PISC Mobile TeleSystems (MTS) | 통신 | 러시아 | 8억 5000만 달러 | 2019 |
| 6 | Siemens AG | 전기·전자 | 독일 | 8억 달러 | 2008 |
| 7 | VimpelCom | 통신 | 네덜란드 | 7억 9,500만 달러 | 2016 |
| 8 | Alstom | 전력·운송 | 프랑스 | 7억 7,200만 달러 | 2014 |
| 9 | Société Générale S.A. | 금융 | 프랑스 | 5억 8,500만 달러 | 2018 |
| 10 | KBR / Halliburton | 에너지·건설 | 미국 | 5억 7,900만 달러 | 2009 |

위 순위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1~9위 모두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이라는 것과 매해 높은 부패인식지수(CPI)를 보이는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국제공조가 수월해지면서 미국의 FCPA 위반 혐의 조사 대상이 유럽 및 아시아의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이 지난 20년간 아시아, 중동, 남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부패행위들이 집중 조사 및 처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FCPA 위반 혐의로 집행 조치를 받은 기업 총 71곳 중에 33곳이 외국 기업이었으며, 외국 기업이 지불한 징벌금이 매년 과반수를 넘어 2019년에는 총 금액의 83%에 달했다. 이로 인해 FCPA가 사실상 미국의 새로운 경쟁국 기업 견제 수단이라는 견해까지 제시되고 있다.

| 연도 | 전체 집행조치 기업 중 외국기업 비율 | 총 징벌금액 대비 외국기업 납부액 비율 |
|------|----------------------|-----------------------|
| 2019 | 57% (8/14) | 83% |
| 2018 | 53% (9/17) | 72% |
| 2017 | 38% (5/13) | 90% |
| 2016 | 41% (11/27) | 63% |

(정보 출처: fcpaprofessor.com)

2019 년을 대표하는 FCPA 위반 기업 사례들만 분석하더라도 FCPA 에 대한 최근 트렌드와 특이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 2 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납부한 기업만 4 곳이었다(에릭슨, 월마트, 프레제니우스, MTS).
- 14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8 건(57%)은 외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이 납부한 벌금은 총 26 억 5 천만 달러 중 22 억 4,600 만 달러(83%)에 달한다.
- 에릭슨, 월마트(Walmart), 프레제니우스(Fresenius Medical Care AG & Co KGaA), MTS(Mobile TeleSystems PJSC) 4 개 기업에 대해 3 년 동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외부 검토 및 모니터링을 명령하였다. 이는 미 법무부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가 개정되면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항목이 대폭 강화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 ICT(Ericsson, Telia, MTS, Microsoft, Cognizant, Juniper Networks), 금융(Deutsche Bank, Barclays), 소비재(Walmart, Westport Fuels Systems), 의료(Fresenius), 마케팅(Quad/Graphics), 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 가스·석유(TechnipFMC)를 포함한 화학, 에너지, 건설, 제약 등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 대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삼성중공업(벌금 7500 만 달러), TechnipFMC(벌금 5 백만 달러) 두 개의 비교적 작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 기업 관련 사건들은 공동집행(coordinated resolution)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 행위가 발견된 국가마다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에릭슨의 경우 미 법무부 수사 종결 직후 스웨덴 정부가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2019년 FCPA 뇌물 및 부패 사건 정리

| 기업 | 부문 | 사유 | 벌금 | 특징 |
|---------------------|-----------|--|-----------------------------------|---|
| 에릭슨(스웨덴) | 통신사업 | - 중국, 지부티,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국영 이동통신사 사업 수주를 위한 당국자에 뇌물 공여 및 계약서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 10억 6천만 달러 | - FCPA 역사상 최대 벌금이 부과된 뇌물 및 부패 사건 - 3년간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유지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 |
| MTS(러시아) | 통신사업 | - 통신사업 수주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딸, 굴나라 카리모프에 4억 2,000만 달러 상당의 뇌물 제공 | 8억 5천만 달러 | - 빔펠콤(Vimpelcom)과 텔리아(Telia)에 이어 통신 사업 수주를 위해 굴나라 카리모프에게 뇌물을 제공한 3번째 사례 - 3년간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유지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 |
| 테크넵FMC(영국) | 가스/석유 | - 테크넵FMC가 합병되기 이전의 두 회사 테크넵과 FMC가 석유 사업 수주를 위해 각각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와 이라크 국영 석유업체 관계자에 뇌물 제공 | 3억 100만 달러 | - 합병 이후에도 이전 회사의 부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않음을 보여줌 |
| 월마트(미국) | 소매업 | -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등 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에서의 자회사가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반부패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음 -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을 실행하겠다고 계획하였음에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음 | 2억 8,200만 달러 | - 신흥시장의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 내부 통제 장치 마련 필수임을 보여주는 사건 - 3년간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유지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 |
| 프레제니우스(독일) | 의료기기/서비스업 | - 중국, 멕시코,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터키 등을 포함한 17개국에서 공무원 및 공공의료 전문가에 현금, 선물, 여비, 기부, 증권 증여 등의 방법으로 3,0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 제공 | 2억 3,100만 달러 | - 2012년에 이와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한 바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인 불기소 조사종결 결정 미적용 - 3년간 독립적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유지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 |
| 도이치뱅크(독일), 바클리즈(영국) | 금융업 | - 도이치뱅크: 투자금융 사업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합작투자법인을 통한 중국, 러시아 공무원 친인척 고용 및 영향력 행사 - 바클리즈: 중국, 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 확보를 위해 당국자 친인척 고용 | 도이치뱅크: 1,600만 달러 바클리즈: 630만 달러 | - 고용 형태 관련 뇌물 수사를 합의종결한 4번째와 5번째 사례 |

★ 본 자료의 저작권은 UNGC 한국협회 및 BIS 프로젝트에 있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 출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IS 에서 보기

UNGC 회원 뉴스

1.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무분별 개발사업 자금지원 안해"



-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9일 밝힘
-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 또는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 협약임.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대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여짐
- 신한은행은 지난해 5 월부터 '적도원칙' 4 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해 옴. 신한은행은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일환으로 종이통장 사용 줄이기 '종이절약 지구 살리기 운동(Save the paper, Save the planet)' 캠페인도 진행 중
- 최근에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2019 년 사회책임보고서'로 공시함. 그룹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전략인 자산의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

이데일리

2. 노을, '현장형 AI 기반 암 조직 진단 플랫폼' 개발 착수



-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기기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노을(주)은 미국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 하버드 의과대학, 연세의료원, 서울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최소침습적 지능형 세포분석 기반 암 진단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힘
-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FNA 샘플 전처리와 디지털 이미징, AI 분석, 원격 진단까지 가능한 소형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존 검체전달 및 진단 프로세스를 생략함으로써 검체 채취단계에서 진단까지 완전 자동화할 뿐 아니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On-Site (현장형) 암 진단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함
- 노을은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1 차 병원이나 전문인력 및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도 신속한 현장형 암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노을 이동영 대표는 “신속형 암 진단 플랫폼을 활용하면 상담, 검사, 결과확인, 치료계획 수립이 1 일 이내 이뤄질 수 있다”며 “플랫폼 개발 후 MGH 하버드의대와 협력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약업신문

3. 인천항만공사,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 인천항만공사는 9월 14일 환경부 및 화성시 공동주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로 기업부문 환경부장관상 수상
- 환경부 주최·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제22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행사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내재화하고 환경친화적 운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진 의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용 과정이 인천항만공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유임
- 인천항만공사는 대기오염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및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 중
-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지역의 환경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필수적 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할 것”이라며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생각하고 솔선수범해 이행하겠다”고 밝힘

뉴스웨이

CSR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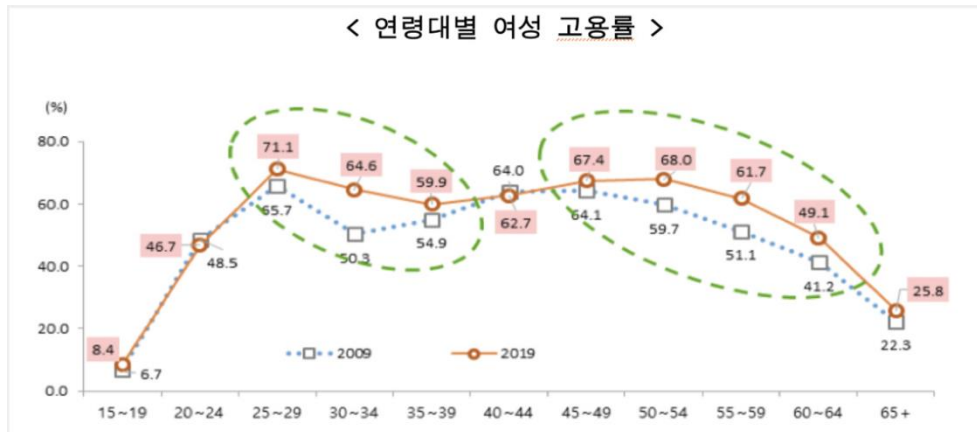
1. RE100 이행 방안 공개 "캠페인 참여와 온실가스 감축 동시에"



- 국내 기업들도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공식적으로 캠페인 참여를 선언한 기업은 없었음. 이에 정부가 ▲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 제 3 차 PPA(전력구매계약) ▲ 지분투자 ▲ 자가발전 등 5 가지 이행방안을 내놓았음
- 녹색 프리미엄제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재생 에너지에다 별도 프리미엄을 얹어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임.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고, 판매 이익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는 방식
- 정부는 우선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탠덤 태양전지'에 투자를 집중해 해외 경쟁기업과 2 년의 기술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움

연합뉴스

2. 맞벌이 여성 가사시간 아직도...‘남성의 3.4 배’



-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2019 년 기준 맞벌이 가정 여성의 가사 시간은 3 시간 7 분으로, 남성(54 분)보다 2 시간 13 분 더 많았음
-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6%로, 남성 고용률(70.7%)보다 19.1%포인트 낮았고, 2009 년에는 남녀 고용률 차이가 22.4%포인트였으나 10 년 사이 격차가 다소 줄어들음
-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1 만 6358 원으로 남성(2 만 3566 원)의 69.4%였음. 이 비율은 2017 년(65.9%), 2018 년(67.8%)에 이어 소폭 상승 추세에 있음. 여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 만 7565 원,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6% 수준인 1 만 3417 원으로 나타남
-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2019 년)을 보면, 공공기관은 18.8%로 전년(17.3%)보다 1.5%포인트 올랐고, 민간기업은 20.9%로 전년(21.5%)보다 0.6%포인트 줄어듦. 4 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2019 년)은 16.2%로, 2018 년(14.6%)보다 1.6%포인트 올랐고,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5%였음

한겨레

3. '한국형 뉴딜'에 ESG 펀드 관심↑...올해 수익률 13%

<주요 국내 ESG 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 : %, 억원, '20.6.8 기준)

| 펀드명 | 설정일 | AUM | 3개월 | 1년 |
|--|----------|--------|------|--------|
| KBSTAR ESG사회책임투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18.2.26 | 64.37 | 5.19 | 13.19 |
| 미래에셋TIGERMISCIKOREAESG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18.2.6 | 49.76 | 5.20 | 11.98 |
| 미래에셋TIGERMSCIKOREAESG리더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18.2.6 | 47.50 | 8.10 | 11.90 |
| 삼성KODEX MSCI ESG 유니버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18.2.6 | 218.56 | 6.60 | 10.77 |
| 브이아이이FOCUSESGLeaders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17.12.12 | 152.22 | 6.8 | -5.95 |
| 한화ARIRANGESG우수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17.8.29 | 40.96 | 5.3 | -11.05 |
| 삼성KODEX 200ESG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19.11.13 | 80.27 | 4.06 | - |

국내 주요 ESG펀드 수익률 현황 [자료=금융투자협회]

- 국내 ESG 펀드의 일종인 SRI(사회책임투자)펀드의 설정액은 총 3721 억원으로 올 들어 540 억원이나 늘었으며, SRI 펀드 42 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도 13.40%를 기록함
- 해외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일찍이 ESG 펀드를 개발하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규모가 1087 조원에 육박하였고 2028년에는 지난해보다 2 배 이상 커질 전망
-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과 맞물려 ESG 펀드가 탄력을 받았고, 금융위원회는 내년 1 월 본격적으로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자펀드 운용사 모집 등 절차에 나선다고 발표함
- 특히 국내 시장에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ESG 중에서도 '환경'에 초점이 더 맞춰져 바이오와 헬스관련 ESG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뉴스핌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한국서부발전(재가입)
- 동아쏘시오홀딩스(주)
- 충청남도개발공사

2. COP/COE 제출회원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대한항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엘에스일렉트릭(주)
- 두산중공업
- 한국서부발전
- 한국산업인력공단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두산중공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평협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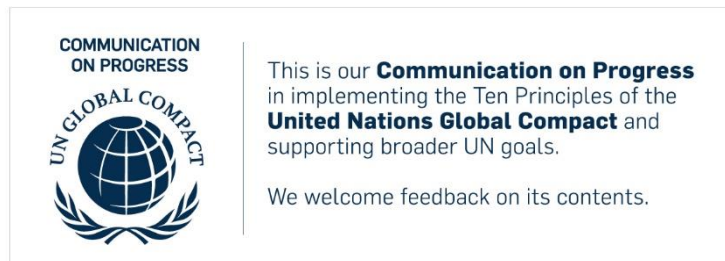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